



## 직업병 관리기준 및 직업성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

당 협회와 대한산업의학회는 지난 11. 11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직업병 관리기준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당 협회와 대한산업의학회가 노동부로부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해온, 기존의 직업병 관리기준의 개정(안)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정리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날 토론회를 거쳐 확정된 연구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 ◆ 특수건강진단 검사방법 및 직업병 관리기준 개정(안)에 있어서는

근래의 건강장해가 산업발달과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만성적인 재해로 나타나며,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게 됨으로써 직업병 진단은 물론 업무기인성을 규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생물학적 감시를 위한 생체시료의 채취와 보관, 피검자의 증상에 관한 문진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대폭적으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또 건강진단시 준수사항 및 시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기술하였다.

###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내

용은 기존의 7개 질병인정기준외에 크롬, 카드뮴, 진동, TDI, 석면, 이황화탄소 6개 유해인자에 대한 인정기준으로서, 각 인자별로 제조, 용도, 물질의 성상, 발생장소와 건강장해를 명시하고,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그리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 협회 창립기념, 우수직원 포상

협회는 11. 22 창립 29주년을 맞아 10년 장기근속자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공로패를, 우수직원에게는 협회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 〈포상자 명단〉

- 장기근속 포상자 -  
천윤원    경남지부 동해센타 사무국장  
위윤복    부산지부 건강관리계장
- 우수직원 포상자 -  
김석원    본부 중앙분석실  
이안재    서울지부 총무과  
이찬오    부산지부 산업위생과  
이재문    대구경북지부 총무과  
이도성    광주전남지부 총무과  
김경혜    대전충남지부 건강진단과  
김대식    충북지부 건강진단과  
임인택    전북지부 건강진단과  
기희순    경남지부 마산센타 건강진단과  
안두영    경남지부 동해센타 일기협 회무과  
오연희    경기지부 수원센타 건강진단과

## 특수검진기관 정도관리 종합평가회 개최

당 협회는 지난 11. 18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전국 특수검진기관장 및 임상, 분석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 1~10. 30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한 '92하반기 특수검진기관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였다.

검진기관들의 건강진단항목별 검사능력 향상과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금년 하반기 정도관리는, 59개 특수검진기관에 대하여 임상검사중 9개 항목과 중금속 2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과 방법, 측정을 평가하는 검사로 실시 되었으며, 임상검사 분야에 59개 기관이, 특수검사분야(중금속)에 혈중연 29개 기관, 혈중 크롬 28개기관이 참여하였다.

실시결과를 보면

1. 임상검사항목은 9개 항목으로 시료 1, 2, 3의 29개 검체를 분배하여 정도관리 성적을 접수한 결과 정도관리 범위내의 성적을 제출한 기관이 50개 기관으로써 87.7%의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나타났다.

2. 특수검사에 있어서는, 혈중연 29개 기관, 혈중크롬 28개 기관에서 참여하였으며 이중 혈중연의 경우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판정범위내에 86.2% 들어서 특수검사 정도관리를 처음 시작한 성적으로는 외국의 경우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협회 정도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실시결과에서 성적미달을 나타낸 임상검사분야 2개기관, 특수검사분야 1개기관에 대해서는 12. 2~4간 분석 전문가를 파견하여 성적이 미흡한 원인분석과 아울러 분석방법 및 내부정도관리를 지도하여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가 높은 성적을 낼수 있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산업보건계 소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에서는 지난 11. 30 14:00~17:00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담당간부 100여명이 참석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신기술에 도입 및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형성과 유해물질의 허용농도기준 및 환경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등에 관한 토론회를 벌임으로써 조합간부들에게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었다.